N.E.W. SEMINARY 설교 자료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Hoon Kim 목사, 2026년 10월 11일, 요나 1:4-17

이 설교는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요나의 끈질긴 불순종과 이방 선원들이 폭풍 속에서 상식과 종교적 반응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난과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 속에서 자기 부인과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침: Hoon Kim 목사, N.E.W. Church. 설교는 목사님이 전하신 원문과 육성 그대로이며, 목회자 자료는 AI의 도움을 받아 영어에서 번역했습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무료로 듣고, 내려받고, 나눌 수 있습니다: newexodusseminary.org/ko/2026-10-11-new-jonah-1-the-hound-of-heaven-and-the/

한눈에 보기 · 가르침 노트 · 성경 본문 가이드 · 단어 연구 · 지명과 연대표 · 가르침 개요 · 학습 가이드 · 기도 · 복습 문제 · 3분 요약 · 한 주간 메시지

시각 자료

- 시각 자료 1: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 시각 자료 2: 복음의 역설: 불순종과 은혜
- 시각 자료 3: 폭풍 속 네 가지 반응
- 시각 자료 4: 단어 연구: 하타르(חָתַר, Chatar)
- 시각 자료 5: 핵심 성구: 요나 1:14
- 시각 자료 6: 거룩한 두려움의 자라남: 가돌

한눈에 보기

한눈에 보기: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 **제목 (한국어):**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설교 원제: 본문 낭독과 복음의 역설: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 **제목 (영어):** The Hound of Heaven and the Salvation of the Outsiders
- **설교 일자:** 2026년 10월 11일

- **본문:** 요나 1:4–17
- **핵심 진리:**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불순종이 충돌하는 상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을 본능적인 반응과 종교적인 자기 의존에서 참된 경외와 기도, 예배로 이끄십니다.

요약

요나서 1장 4–17절을 본문으로 한 이 세 번째 설교에서, 김훈 목사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는지 복음의 신적인 역설을 살펴봅니다. 현대 의학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자주 발견되는 것처럼, 요나와 하나님의 완고한 충돌은 뜻밖에도 이방 선원 무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김훈 목사는 이 선원들의 영적 여정을 추적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식과 미신적인 종교성, 그리고 자기 의에 찬 도덕적 양심을 어떻게 깨뜨리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지를 보여 줍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로마서 9–11장에 설명된 복음의 비밀을 예표하며,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박힌 교만을 내던지고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주요 흐름

1. **복음의 역설과 이방인의 구원** (본문 낭독과 복음의 역설: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의약품의 부작용처럼 작용하여 뜻밖의 구원을 얻게 되는 어부지리의 은혜.
2. **상식적인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상식적인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인간의 전문 지식과 해양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됨.
3. **종교적 반응을 넘어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종교적 반응을 넘어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운명을 점치려는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시도(제비뽑기)를 넘어서서,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으로 나아감.
4. **양심의 반응을 깨뜨리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기도** (양심의 반응을 깨뜨리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기도): 자기 의에 찬 도덕주의와 부딪히며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고, 온전히 굴복하여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음.
5. **참된 예배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참된 예배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룩한 두려움과 희생제물, 서원으로 이어지는 선원들의 영적 여정의 절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순종과 이방인 및 이스라엘 모두의 구원을 예표함.

가르침 노트

강의 노트

1. 역사적 및 문화적 배경

- **해상 무역과 다신교**: 지중해를 건너 다시스로 향하던 배들은 다양한 민족적 배경과 수호신을 지닌 다국적 선원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요나 1:5). 위기 상황에서 선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 신이나 기상 관련 신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 **인신 제사 전통**: 김훈 목사는 치명적인 폭풍우가 칠 때 변덕스러운 바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인신 제사를 드렸던 고대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심청전과 같은 널리 알려진 설화 전통과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습니다. 선원들은 요나서 1장 14절에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이러한 거래적이고 이방적인 잔인함을 분명하게 거부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살인이나 이방 신을 달래기 위한 제사로 여겨지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 **점술과 제비뽑기**: 제비뽑기(요나 1:7)는 고대 근동에서 신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널리 받아들여진 관습이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이방 종교의 맥락에서 행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결과를 이끄셔서 요나를 지목하셨습니다.

2. 장소 및 지리

- **지중해**: 단순한 중립적 자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으로 묘사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남으로써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넓은 바다 위에서도 자신의 주권을 입증하셨습니다.
- **니느웨**: 잔혹한 앗수르 제국의 수도로,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긍휼의 메시지를 전하느니 차라리 바다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겠다며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3. 원어적 통찰

- **의인화된 폭풍 (요나 1:4)**: 히브리어 본문은 배가 거의 깨어질 것처럼 "생각했다" 또는 "계산했다"라고 묘사합니다(חִשְּׁבָה לְהִשָּׁבֵר, *chissebah lehishaver*). 김훈 목사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능동적이고 의도적이며 거의 인격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묘사된다고 강조합니다.
- **힘껏 노를 저음 (요나 1:13)**: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chatar*(חָתַר)로, 문자적으로 "파내다" 또는 "뚫고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다른 곳에서는 벽을 뚫을 때 사용됨). 김훈 목사는 이것을 마치 삽으로 땅을 파듯이 파도를 격렬하게 파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 **"가돌" (גָּדוֹל - 큰)**: 요나서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조적 모티프입니다. 하나님은 *가돌*한 성읍 니느웨를 다루시며, *가돌*한 폭풍(1:4)을 보내시고, 선원들에게 *가돌*한 두려움(1:10, 1:16)을 일으키시며, *가돌*한 물고기(1:17)를 예비하십니다. 선원들은 큰 폭풍을 두려워하던 데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 1:14)**: 히브리어 구문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기쁨을 강조합니다(כַּאֲשֶׁר חָפַצְתָּ עָשִׂיתָ, *ka'asher chafatzta asita*).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속해 있습니다.

4. 영적 진리와 적용

- **은혜의 의학적 비유 (부작용)**: 보톡스(치명적인 보툴리눔 독소에서 유래하여 눈 떨림과 사시 교정용으로 발견됨)나 오젬픽, 마운자로, 위고비와 같은 당뇨 치료제는 유익한 부작용을 통해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의 반역적인 도망과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완악함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11장).
-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폭풍, 이방인 선장, 섭리적인 제비뽑기, 선원들의 집요한 질문이라는 혹독한 긍휼의 도구를 통해 방황하는 종을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고난은 헛된 피난처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인간 양심의 함정**: 양심은 종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선원들이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던 이유는 승객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할 때, 영적인 탈진("바다를 삽질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도덕성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 **참된 기도 대 종교적 거래**: 참된 기도는 인간의 해결책과 상식, 도덕적인 노력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태어납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며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경 본문 가이드

본문 해설 가이드

설교에 사용된 본문

성경 구절	활용 방식	위치	김훈 목사가 본문에서 도출한 내용	신뢰도
요나 1:4–17	낭독, 인용, 강해	전반 (중심 본문)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시고, 선원들이 제비를 뽑아 요나를 찾아내며,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희생제물과 서원으로 예배하는 서사적 흐름.	높음

성경 구절	활용 방식	위치	김훈 목사가 본문에서 도출한 내용	신뢰도
로마서 9–11장	암시, 요약	1단락	복음의 비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은혜의 문을 열어 주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고 궁극적인 회복에 이르게 함.	높음
마가복음 4:35–41	암시, 의역	3단락	갈릴리 폭풍 속의 제자들; 노련한 어부들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다 쏟아부은 뒤에야 예수님을 깨웠으며, 이는 인간의 기술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폭풍을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 줌.	높음
야고보서 3:1	인용, 암시	5단락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풍부한 경험이나 지적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것 그대로의 계시 앞에 자신의 양심을 복종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음.	높음
누가복음 1:38	인용, 의역	6단락	천사를 향한 마리아의 순종("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고 삶을 뒤흔드는 부르심 앞에 온전히 굴복한 모범.	높음
요나 2:1–9	암시	5단락	요나서 1장 14절에 나오는 선원들의 짧고 절박한 기도와 대조됨;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나서야 뒤늦게 기도함.	높음

예배 중 다른 순서에서 사용된 본문

성경 구절	활용 방식	위치	도출된 내용	신뢰도
로마서 3:10–18	원문 그대로 인용	대표 기도 (장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고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높음
요나 1:15–16	낭독	설교 결론부 / 전환부	선원들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주제적 흐름을 확증하기 위해 화면의 본문을 함께 읽음.	높음
로마서 11:28–31	소리 내어 낭독	설교 결론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언약적 긍휼이 결국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어짐을 보여 주기 위해 낭독함.	높음

중심 본문의 배경

요나서 1장 4–17절의 배경은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치하의 지중해입니다. 잔혹한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욥바 항구에서 서쪽 다시스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지중해는 위험한 계절풍으로 유명했지만, 본문은 이 폭풍을 단순한 기상학적 우연이 아니라 도망치는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 여호와께서 의도적으로 던지신 신적인 미사일로 묘사합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다신교 선원들은 저마다 지역적인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따라서 망망대해에서 피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것은 바다와 마른 땅을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이방 신들의 완전한 무력함을 폭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신학적 적용 및 연결 고리

김훈 목사는 요나의 해상 드라마를 로마서 9–1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신학과 엮어 설명합니다. 요나의 완고한 반역이 뜻밖에도 이방 페니키아 또는 지중해 선원들에게 여호와를 알고 예배하는 기회를 가져다준 것처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걸림돌은 이방 세계에 구원의 홍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김훈 목사는 선원들에게서 나타나는 내적인 영적 진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본능/상식* (요나 1:4–5): 짐을 바다에 던지고 항해 전문 지식을 발휘하여 살아남으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위기는 해결할 수 없음.
2. *종교적 대처* (요나 1:7): 초자연적인 분노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이방 점술 방식(제비뽑기)을 사용함.
3. *계시* (요나 1:9–10):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정체성을 듣고 폭풍에 대한 공포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화됨.
4. *도덕적 양심* (요나 1:13):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워 더 열심히 노력함으로써(요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힘껏 노를 저음) 하나님이 명하신 해결책에 저항함.
5. *온전한 굴복과 예배* (요나 1:14–16): 자기 의존을 포기하고 여호와께 직접 기도하며, 그분의 판결에 순종하고, 참된 희생제물과 서원으로 반응함.

주목할 만한 말실수나 불확실한 부분

- 김훈 목사는 구두 설교 중 2단락에서 본문을 요약할 때 실수로 "요나서 4장 17절"이라고 언급했으나, 곧바로 요나서 1장 4–17절에 대한 강해를 이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김훈 목사는 "힘껏 노를 저었다"는 표현의 히브리어 어근(חתר, *chatar*)을 비유적으로 "마른 땅을 파듯이 / 삽질하듯이 바다를 파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번역은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담아냈습니다.

단어 연구

단어 연구: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1. חָתַר (Chatar)

- **설교 중 언급 형태:** 하타르 / "땅을 판다"
- **음역:** *chatar* (또는 *hatar*)
- **히브리어 문자:** חָתַר
- **김 목사가 가르친 의미:** 뚫고 들어가다, 땅을 파다, 혹은 흙을 삽질하다. 김 목사는 요나서 1장 13절의 히브리어 원문이 노를 젓는 일반적인 항해 용어를 쓰지 않고, 선원들이 "바다를 파듯이, 땅을 파듯이 바다에 노를 저었다"고 묘사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인간의 탈진할 듯 필사적이며 궁극적으로 헛된 노력을 잘 보여 줍니다.
- **성경 구절:** 요나 1:13
- **해당 단락 제목:** 양심의 반응을 깨뜨리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기도

2. גָּדוֹל (Gadol)

- **설교 중 언급 형태:** 가돌
- **음역:** *gadol*
- **히브리어 문자:** גָּדוֹל
- **김 목사가 가르친 의미:** 크다, 거대하다, 강력하다. 김 목사는 이 히브리어 한 단어가 1장을 하나로 묶어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니느웨의 '큰 성읍'(*gadol*), 바다에 던져진 '큰 폭풍'(*gadol*), 그리고 16절에서 선원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한 것'(*gadol*)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위엄에 대한 거룩하고 큰 경외심을 깨우치시기 위해 어떻게 큰 위기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보여 줍니다.
- **성경 구절:** 요나 1:4, 1:12, 1:16
- **해당 단락 제목:** 참된 예배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3. זָבַח זֶבַח / נָדַר נֶדֶר (히브리어 동족 목적어)

- **설교 중 언급 형태:** "제물을 제물 삼고 서원을 서원했다"
- **음역:** *zavach zevach* / *nadar neder*
- **히브리어 문자:** זָבַח זֶבַח / נָדַר נֶדֶר

- **김 목사가 가르친 의미:** 절대적인 결단과 엄숙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동사 어근과 그에 대응하는 명사의 반복. 김 목사는 상선에 일반적인 희생 제사용 가축이 실려 있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반복된 히브리어 표현은 육지에 도달하면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확고하고 구속력 있는 서원을 드렸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성경 구절:** 요나 1:16
- **해당 단락 제목:** 참된 예배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4. 어부지리 (Eobujiri)

- **설교 중 언급 형태:** 어부지리 (漁父之利)
- **음역:** *eobujiri*
- **한글 표기:** 어부지리
- **김 목사가 가르친 의미:**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싸우는 사이에 제삼자(어부)가 둘 다 잡아 이득을 얻는 상황을 묘사하는 전통 고사성어로, 다른 사람들의 다툼으로 인해 뜻밖의 횡재나 유익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김 목사는 요나가 하나님과 고집스럽게 맞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이방 선원들이 뜻밖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의 풍성함을 물려받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자성어를 사용했습니다.
- **성경 구절:** 요나 1:4–17; 로마서 11:28–31
- **해당 단락 제목:** 본문 낭독과 복음의 역설: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지명과 연대표

장소 및 연대표

언급된 장소

지명	가르침에 나타난 사건	현대 위치 (확인된 경우)	성경 구절
지중해	하나님께서 요나의 배를 향해 사나운 폭풍을 던지셔서 선원들과 마주하시고, 심판과 보존 속에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곳.	지중해	요나 1:4
욥바 (문맥상 암시됨)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 위해 배에 올랐던 항구 도시.	이스라엘 야파 / 텔아비브	요나 1:3

지명	가르침에 나타난 사건	현대 위치 (확인된 경우)	성경 구절
다시스 (문맥상 암시됨)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려 했던, 당시 알려진 세상의 반대편 끝에 있는 목적지.	스페인 남부 (타르테소스 추정)	요나 1:3
니느웨	악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으나 요나가 경고하기를 거부했던 거대한 신앗수르 제국의 도시.	이라크 모술 부근	요나 1:2
갈릴리 바다	맹렬한 광풍 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다 써본 후에야 예수님을 깨웠던 곳.	갈릴리 바다 (키네렛 호수), 이스라엘	마가복음 4:35–41

연대 및 연대표

연대 / 시기	사건	성경 구절
주전 8세기경 (여로보암 2세 치세)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침.	열왕기하 14:25; 요나 1:1–3
주전 8세기경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폭풍을 던지심; 이방 선원들이 회심하여 여호와를 예배함;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삼 일 밤낮을 보냄.	요나 1:4–17
주후 28–30년경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두려움과 자기 확신을 꾸짖으심.	마가복음 4:35–41
주후 57년경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충만함에 앞서 그들의 넘어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가져왔는지 설명함.	로마서 9–11장

가르침 개요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 **본문:** 요나 1:4–17

-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인간의 불순종이 충돌하는 상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본능적 반응과 종교적 자기 확신에서 참된 경외와 기도와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1. 뜻밖의 은혜의 선물

- **성경 구절:** 요나 1:4–5, 17; 로마서 11:28–31
- **핵심 통찰:** 제약의 역사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종종 인생을 바꾸는 치료제가 되곤 합니다(보툴리눔 독소가 보톡스가 되거나, 당뇨약이 비만 치료제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동안, 이방 선원들은 뜻밖에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부지리로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11장에서 설명하듯이,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넘어짐은 먼저 이방 민족들에게 긍휼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1 (제목 카드), 시각 자료 2 (불순종과 은혜)

2. 상식적인 반응에서 참된 믿음으로

- **성경 구절:** 요나 1:4–5; 마가복음 4:35–41
- **핵심 통찰:**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은 항해 경험이나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성도가 순전히 인간적인 논리와 과거의 훈련에만 의존할 때, 인생은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내 답을 미리 적어 내미는 태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괄호를 치고 바짝 엎드리는” 믿음의 훈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3 (폭풍 속 네 가지 반응)

3. 미신적 종교를 넘어

- **성경 구절:** 요나 1:7–10
- **핵심 통찰:** 제비뽑기는 운명을 깨닫거나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기 위한 고대 이방 종교의 방식이었습니다. 제비가 요나를 지목했을 때, 그는 여호와를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선원들의 두려움은 즉시 자연적인 폭풍에서 폭풍 배후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복이나 구하는 초월적 힘으로 대하는 기복 종교에서 벗어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3 (폭풍 속 네 가지 반응)

4. 양심을 깨뜨려 참된 항복의 기도로

- **성경 구절:** 요나 1:12–15; 누가복음 1:38
- **핵심 통찰:**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원들의 도덕적 양심이 이를 거부했고, 그들은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타르(*chatar*)'는 그들이 말 그대로 삽으로 흙을 파내듯 성난 바다를 파고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 양심은 인간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순종했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4 (단어 연구: 하타르), 시각 자료 5 (핵심 성경 구절: 요나 1:14)

5. 참된 예배자의 탄생

- **성경 구절:** 요나 1:16; 로마서 11:30–31
- **핵심 통찰:**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지자 선원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거룩한 경외심(*gadol*)에 사로잡혀 서원하고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도 제사장 가문도 없던 이방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 흠 없는 순종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까이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 **관련 시각 자료:** 시각 자료 6 (거룩한 두려움의 성장: 가돌)

마치는 결단

모든 성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요나가 뭘까" 인간적인 상식과 종교적인 흥정, 그리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도덕적 양심을 바다에 던져 버리십시오. 주권자이신 왕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학습 가이드

스터디 가이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인의 구원

핵심 진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격하시는 당신의 사랑과 인간의 불순종이 충돌하는 상황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본능적 반응과 종교적 자기 확신에서 참된 경외와 기도와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핵심 구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 1:14, 개역한글)

배경 해설

1. **폭풍의 주권 (요나 1:4):** 고대 근동의 항해 문화에서 폭풍은 흔히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 신들의 탓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은 여호와께서 신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폭풍을 직접 던지신 것으로 인격화하여 묘사합니다. 어떤 항해 기술이나 배의 짐을 가볍게 하는 노력도 창조주께서 부르신 폭풍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2. **제비뽑기 (요나 1:7):** 고대 세계에서 제비뽑기는 운명이나 신의 노여움을 알아내기 위해 이방 문화권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비록 미신에 뿌리를 둔 행위였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계적인 점술의 방향을 바꾸셔서 제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요나에게 뽑히게 하셨습니다.
3. **바다를 파다 (*Chatar*, 요나 1:13):** 히브리어 동사 '하타르(*chatar*)'는 문자적으로 흙을 "파다" 또는 벽을 "뚫다"를 뜻합니다. 본문은 이 생생한 단어를 사용하여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모습을 마치 삽으로 파도를 파내는 것처럼 묘사하며, 하나님의 작정에 맞서는 인간 노력의 헛됨을 극적으로 보여 줍니다.
4. **제단 없는 이방인의 예배 (요나 1:16):**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선원들이 거룩한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고, 상선의 갑판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며 서원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신다는 복음의 위대한 비밀을 예표합니다.

나눔 질문

1. **본문 이해:** 폭풍이 닥쳤을 때 선원들은 처음에 어떻게 스스로를 구하려고 했으며, 왜 그들의 상식적인 항해 방식은 실패했습니까 (요나 1:5)?
2. **반응 살펴보기:** 요나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선원들은 왜 요나의 지침을 즉시 따르지 않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까? 잘못 길들여진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적 자기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의 성품 발견하기:** 14절에 나오는 선원들의 기도와 배 위에서 침묵하던 요나를 비교해 보십시오. 선원들의 고백,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는 성경적인 기도와 항복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4. **그리스도와 연결하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사건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님의 기꺼운 죄 없는 희생은 요나의 마지못한 침몰보다 어떻게 더 위대합니까?

5. **개인적 적용:** 현재 여러분 마음 밑바닥에 숨어 있는 '요나'(완고한 자기 확신, 쓴 뿌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혹은 도덕적 자만 등)는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항복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용 요약 (WhatsApp)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완고한 반역을 사용하셔서 이방 선원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이끄셨고, 그분의 긍휼이 가장 뜻밖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도덕적 노력이 실패할 때, 참된 평안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할 때에만 임합니다. 오늘 당신이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할 숨은 교만은 무엇입니까? *핵심 구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 1:14, 개역한글)*

기도

'요나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 말씀과 함께 드리는 기도

요나 1:4-17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폭풍의 배후에 서 계시며 성난 파도를 다스리십니다.
거룩하신 뜻으로 큰 바람을 던지시며,
주님의 뜻대로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은 니느웨보다 크시며,
그 어떤 악보다도 크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경외와 거룩한 두려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사랑이기에,
방황하는 죄인들을 은혜로 줄기차게 추적하십니다.
우연이 겹쳐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끝을 알 수 없이 깊고도 달콤하며,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자
주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창문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주님께 속하였으니,
오직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처럼 주님 앞을 떠나 도망치고,
안전한 곳에 숨어 종교적 교만 속에 잠들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질병과 돈과 미래와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여,
내면 깊은 곳에 탐욕과 자기 의는 숨겨 둔 채 짐만 내던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양심을 더 위에 두고,
주님의 뜻을 거슬러 헛되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신비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하신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큰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폭풍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상에게서 돌이켜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정답을 빈칸으로 남겨 두고 주님께서 채우시도록 맡기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과 자기 의지와 교만이라는
우리 안의 요나를 바다에 던져 버리게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빚어 주시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주님의 완성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합니다.
먹고 말하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산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결코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긍휼 가운데 여러분을 굳건히 지키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기쁨의 순종과 거룩한 경외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1]

[1] 로마서 11:29-31에서 인용 및 발췌.

이 기도의 배경이 된 성경 말씀: 요나 1:4-17; 로마서 11:28-31; 마가복음 4:37-41; 누가복음 1:38; 누가복음 22:42; 로마서 12:1; 야고보서 3:1.

Hoon Kim 목사의 설교와 함께 드리도록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목사님이 직접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전체 검토에 앞서 2026년 11월 11일에 먼저 나눕니다.

복습 문제

복습 퀴즈: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인의 구원

질문

1. 도입 예화에서 김훈 목사님은 뜻밖의 부작용이 인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준 사례로 어떤 의약품들을 언급했습니까? a) 페니실린과 아스피린 b) 보톡스, 위고비, 마운자로 c) 모르핀과 인슐린 d) 소아마비 및 말라리아 백신

1. 김훈 목사님은 두 사람 사이의 다툼 속에서 뜻밖의 제3자가 유익을 얻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고사성어(*고사성어*)를 사용했습니까? a) 백미 (白眉) b) 동문서답 (東問西答) c) 어부지리 (漁父之利) d) 고진감래 (苦盡甘來)

1. 김훈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은 로마서 9-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보여 줍니까?

1. 요나 1:4-5에서, 짐들을 바다에 던졌음에도 왜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a) 짐이 너무 가벼워서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b) 선원들이 짐을 충분히 멀리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c)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폭풍이었고, 진짜 문제는 배 밑층에 누워 있던 요나였기 때문에 d) 선장이 배의 키를 잡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1. 김훈 목사님은 요나서 1장의 선원들의 행동을 마가복음 4장에서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과 어떻게 비교합니까?

1. 요나 1:7에서 선원들은 자신들의 상식적인 노력이 실패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a) 배를 욥바로 돌렸다 b)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닥쳤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다 c) 요나를 돛대에 묶었다 d) 배의 닻을 내렸다

1. 요나 1:13에서 선원들이 힘껏 노를 저은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chatar* (חָתַר)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독수리처럼 날아가다 b) 땅을 파다, 혹은 흙을 삽질하다 c) 두려움에 소리치다 d) 키 없이 표류하다

1. 요나 1:14에서 선원들의 기도는 그들이 여호와를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고대의 변덕스러운 폭풍의 신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어떻게 보여 줍니까?

1. 요나서 1장 전체에 걸쳐 거듭 나타나며 큰 성읍, 큰 폭풍, 그리고 선원들의 큰 두려움을 하나로 이어 주는 "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a) *Shalom* b) *Hesed* c) *Gadol* d) *Kadosh*

1. 설교에 따르면, 바다로 던져진 요나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이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정답 및 해설

1. **b) 보톡스, 위고비, 마운자로.** (단락: 복음의 역설과 이방인의 구원)
2. **c) 어부지리.** (단락: 복음의 역설과 이방인의 구원)
3. **주관식 정답:**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으로 인해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흘러갔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되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단락: 복음의 역설과 이방인의 구원)
4. **c)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폭풍이었고, 진짜 문제는 배 밑층에 누워 있던 요나였기 때문에.** (단락: 상식적인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5. **주관식 정답:** 두 경우 모두 경험 많은 뱃사람들(요나서의 직업 선원들, 마가복음 4장의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힘을 다 쏟아부었으나, 결국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락: 상식적인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6. **b)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닥쳤는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다.** (단락: 종교적 반응을 넘어 참되신 하나님을 알기까지)
7. **b) 땅을 파다, 혹은 흙을 삽질하다.** (단락: 양심의 반응을 깨뜨리는 참된 회개와 순종의 기도)
8. **주관식 정답:** 그들은 무죄한 피를 자기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는 요나를 던지는 행위가 잔인한 신을 달래기 위한 이방의 인신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적인 뜻에 굴복하는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단락: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르며 온전히 굴복함)
9. **c) *Gadol*.** (단락: 참된 예배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0. **주관식 정답:** 요나는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 그리고 종교적 자포자기 때문에 사나운 바다에 던져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고 잠잠케 하시기 위해 완전하고 흠 없는 순종으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단락: 참된 예배자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3분 요약

3분 설교 요약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인의 구원" 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N.E.W. Church의 김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닌 놀라운 비밀을 전합니다. 김훈 목사님은 제약의 역사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오히려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된 사례들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툴리눔 독소는 원래 눈 떨림과 경련 치료제로 쓰였으나, 주름을 펴 주는 효과가 발견되면서 보톡스라는 혁신적인 치료제로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 역시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도 뜻밖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나는 완고하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지만,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충돌 속에서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진리를 듣고 구원을 얻는 어부지리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설명하듯,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방인들이 먼저 긍휼을 입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마치 사냥개와 같이 집요하게 추격하셨지만, 참되게 반응한 쪽은 이방 선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배 밑바닥에서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짐들을 바다에 던지며 인간적인 상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가 영적인 데 있으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어 선원들은 미신적인 종교적 반응을 넘어섭니다. 요나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은 자연의 폭풍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양심과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 육지로 돌아가려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으며 하나님의 계시에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비로소 두 손을 들고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직접 부르짖으며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써 스스로 통제하려던 손을 내려놓았고,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김훈 목사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굳게 박혀 있는 자존심과 자기 의라는 요나를 내어 던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선원들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우리 삶 전체를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올려 드립시다.

한 주간 메시지

한 주간의 WhatsApp 메시지

첫째 날

요나 1:4-5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이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선원들은 짐을 던졌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기에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해결책이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손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묵상 질문: 오늘 내가 의지하기를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둘째 날

요나 1:7-9

선원들은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제비를 뽑았으며, 바다와 마른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풍랑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초월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문제 해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묵상 질문: 당신은 고난 속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만 급급합니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갈망합니까?

셋째 날

요나 1:13

요나가 해결책을 알려 주었음에도 선원들은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없다는 양심의 기준 때문에 육지로 돌아가려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양심은 인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자기 의를 고집하는 마음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묵상 질문: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넷째 날

요나 1:14

더 이상 육지로 돌아갈 수 없어 기진맥진해진 선원들은 마침내 여호와께 직접 부르짖으며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주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모든 계획이 막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시작됩니다.

묵상 질문: 이번 한 주,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굴복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날

요나 1:15-16

선원들은 인간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사나운 바다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그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로 변화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배하기 위해 내 안에서 던져 버려야 할 자존심과 고집은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 1961).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본문을 바꾸지 않고 인용했습니다.